

분류체계 인용순 및 적용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Citation Order of Classification Scheme and Its' Application

김 성 원 (Sungwon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2.2 인용순 관련 주요 선행연구 |
| 2. 문헌정보학의 인용순 연구 | 3. 인용순 적용의 실제 |
| 2.1 인용순 관련 분류규범 | 4. 결 론 |

초 록

문헌분류체계에서 복합주제의 전개를 위해서는 복수의 구분기준 혹은 특성(characteristics)을 적용해야 한다. 복합주제의 세분전개를 위해 채택된 복수의 특성들은 세분의 매 단계에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복합주제를 세분 전개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구분기준을 적용하는 순서를 인용순(citation order)이라 한다. 주제를 세분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구분기준의 전개순서인 인용순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가져야 문헌분류체계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열거식 분류체계의 경우에는 복합주제의 표현을 위한 인용순의 결정이 분류체계의 구성과 체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용순 및 그 적용과 관련된 분류이론상의 기본 원칙들은 실제 분류체계 구축과정에서 실용적인 이유로 완벽히 적용되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분류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인용순 관련 분류이론과 선행연구를 개괄해보고, 인용순 실제 적용상의 제반 사항을 고찰하였다.

ABSTRACT

For the effective classification of complex subjects, a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 should adopt multiple division principles (or facets). Each of the multiple principles adopted for the division of complex subjects is sequentially applied at each stage of division. The order of application of these multiple principles during the process of division of complex subjects is called citation order. In order for a classification scheme to be consistent and logical, the citation order of division principles applied to classify complex subjects should be concrete and consistent. Especially, in case of enumerative classification system, decisions on citation order to represent complex subjects significantly affect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re are basic principles and theoretical canons of the classification theory on the citation order and its application, but they cannot be applied solidly in the process of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ment for practical reasons. Therefore, this paper first reviews previous works on classification theories regarding citation order, then explores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for the application of citation order.

키워드: 분류, 분류체계, 열거식 분류체계, 지식조직, 인용순, 주제전개순, 분류이론, 분류원칙, 분류규범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Scheme, Enumerative Classification System,
Knowledge Organization, Citation Order, Classification Theory, Citation Order,
Canon of Classification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CNU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ungwonk@cnu.ac.kr)

논문접수일자: 2016년 4월 26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4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5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2): 101-118,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2.101>)

1. 서론

인용순(citation order)은 분류체계에서 복합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채택한 복수의 특성을 전개하는 순서이다(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2015). 주제명표목의 작성과정에서 복합주제의 표현을 위해 통제어휘들을 조합하거나, 분류체계의 전개과정에서 복합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채용되는 복수의 특성(패시)을 조합하는 순서인 인용순은 주제전개순이라는 용어로도 지칭된다. 분류의 대상이 되는 주제를 표현하거나 분류항목을 전개하기 위해 둘 이상의 특성이 적용될 때 해당 특성들을 어떤 순서로 전개하느냐 하는 인용순 결정의 문제는 분류체계의 논리성과 일관성 확보의 필요조건인 까닭에 체계적인 분류체계의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이다. 특히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가 있는 특성들을 조합하여 미리 분류항목을 전개해놓은 열거식 분류체계나 전조합색인의 경우 인용순의 결정 및 적용은 분류체계와 색인시스템의 수월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용순의 문제는 분류체계의 구성에 있어 기본적인 문제인 까닭에 분류이론의 기초적 항목으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문헌 분류체계에서 인용순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제시된 랑가나단(S. R. Ranganathan)의 기본 범주간 'PMEST: Personality-Material-Energy-Space-Time'의 인용순과 듀이십진분류법(이하 DDC)의 최후수단표(table of last resort)에서 채용하고 있는 포스켓(A. C. Foskett)의 인용순 'Things-Kinds-Parts-Materials-Properties-Process-Operation-Agent' 등이 대표적 연구결과물이다(Buchanan 1979).

랑가나단의 'PMEST' 기본 범주 인용순이나 이 보다는 자세한 DDC의 인용순은 일견 완벽히 정리되어 단순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랑가나단의 인용순을 적용한 콜론분류법(Colon Classification) 기본 범주 M(Matter)의 경우 실제로는 'Matter Material', 'Matter Property', 'Matter Method' 세 개의 하위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주제의 세분전개를 위해서 동일한 기본 범주 내에서 'Round'와 'Level'이라는 장치를 도입하여 반복적으로 주제를 세분 기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적용과정까지 단순한 것은 아니다(Kumar 1981).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 범주간의 인용순을 복합주제에 적용하여 세밀하게 전개하는 실제과정은 매우 복잡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적용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랑가나단이나 포스켓의 개괄적인 인용순은 실제 인용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위에 예시한 DDC의 인용순에서 '종류(Kinds)' 기본 범주에는 하나의 특성 혹은 패시(facet)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간집단 즉, 인류라는 주제(Things)를 구분하는 첫 번째 범주인 '종류(Kind)'에 해당되는 분류기준에 포함될 특성은 인종, 연령, 성별 등으로 다양하다. 인종이라는 분류의 기준에 따라 황, 흑, 백으로 나눌 수 있고, 연령이라는 기준에 따라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등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성별이라는 기준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다. 제시된 기본 범주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이 복수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인용순 관련 연구에서는 동일 범주에 속하는 여러 특성들 간의 전개순서를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인용순과 관련하여 비커리(Vickery)는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좀더 길고 상세한 기본 범주의 인용순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언급하면서 'Substance(product)-Organ-Constituent-Structure-Shape-Property-Patient(Raw Material)-Action-Operation-Process-Agent-Time'의 좀 더 포괄적인 인용순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표준화된 인용순이 모든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과 주제별로 적합한 인용순을 적용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Vickery 1960, 31). 이에 본고는 분류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인용순 관련 분류이론과 선행연구를 개괄해보고, 실제 적용상의 제반 고려사항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문헌정보학의 인용순 연구

문헌정보학은 실용적 학문으로 정의되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학문의 성격을 반영하듯 분류 개론서들은 도서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류체계의 구성과 사용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문헌분류체계의 구축과 관련한 기본적 이론이나 원칙이 포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분류와 관련된 원칙이나 이론이 소개되어 있는 개론서의 경우에도 하나의 장(章) 정도를 배정하여 1) 분류체계는 합목적성을 견지해야 한다. 2) 항목의 전개는 일관성과 망라성이 있어야 한다. 3) 동위항목 간에는 상호배타적이어야 한다. 4) 단계별 점진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정도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더 간략하게는 동위항목 설정은 '상호 배

타적이고 집합적으로 포괄적(mutually exclusive, jointly [collectively] exhaustive)'이어야 한다 정도의 원칙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Chan and Hodges 2007). 이 장에서는 문헌분류체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용순과 관련된 분류원칙/규범 등 분류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인용순 관련 분류규범

분류체계의 구축 및 적용은 인류가 축적하여 온 방대한 지식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조직화하려는 시도이다. 방대한 지식 전체를 지식조직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분류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토대가 되는 확고한 이론적 기반이 필요하다. 임의적인 체계의 구축이나 무원칙한 적용으로는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식조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류 이론가들은 문헌분류체계의 구축에 적용되는 기본적 원칙의 정립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문헌분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이론체계는 기본적으로 분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분류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작업자가 분류대상이 되는 문헌의 주제를 파악하는 개념의 단계(idea plane), 파악된 주제를 분류체계에서 채택한 용어인 통제어로 변환하는 용어의 단계(verbal plane), 그리고 통제어로 표현된 문헌의 주제를 분류체계에서 채택한 기호로 변환하는 기호의 단계(notational plane)로 구분된다(Ranganathan 1967). 분류 이론가들은 각 단계별로 적용되어야 하는 분류의 원칙과 규범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원칙들을 분류작업의 단계별로 정리하여 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Kumar 1981, 96-126).

〈표 1〉 분류관련 이론체계

분류단계	분류의 원칙/규범
개념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규범(Canons for Characteristics) • 특성의 연속 규범(Canons for Succession of Characteristics) • 동위류 배열 규범(Canons for Array) • 연쇄 규범(Canons for Chain) • 기원순 규범(Canons for Filiatory Sequence)
용어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규범(Canon of Context) • 나열규범(Canons of Enumeration) • 현재성규범/통용규범(Canons of Currency) • 침묵-객관규범(Canons of Reticence)
기호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형동어어 규범(Canon of Synonym) - 동음(동형)어어어 규범(Canon of Homonym) • 그룹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성/통일성규범 - 계층-비계층 규범 - 혼합/순수기호 규범 - 패킷 기호와 비패킷 기호 규범

위와 같은 분류단계별로 정립된 분류이론의 체계 내에서 인용순과 관련된 분류 규범은 개념의 단계에 포함되는 규범들이다. 복합주체의 표현을 위한 특성의 배열순서인 인용순을 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분류규범은 개념의 단계에 적용되는 규범들 가운데 특성의 연속규범과 연쇄 규범이 관련되어 있다. 두 규범에 포함되는 하위 규범의 대요는 〈표 2〉와 같다(Ranganathan 1967, 152-178).

개념단계에 적용되는 특성의 연속규범과 연쇄규범의 하위 규범 가운데 인용순과 관련된 세부규범을 살펴보도록 한다. 부수성 규범은 주제를 동일한 구분지로 구분하게 되는 둘 이상의 특성/구분기준이 상하위 계위에 중복하여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구분할 때 연령으로 구분하고 다음 단계에서 연령으로 구분한 것과 같은 구분지로 세분할 특성(예를 들면 출생년)을 중복하여 전개하면 안

된다는 규범이다. 즉, 인용순의 결정과정에서 동일한 구분지로 주제를 구분한 특성들을 중복해서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적합연속규범은 특성의 순서인 인용순이 분류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용순이 세분 전개되는 주제의 성격에 적합하고 이용에 도움이 되는 순서로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관연속규범은 적합한 순서로 한번 결정된 인용순은 분류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 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념의 단계에 포함되는 분류규범의 하나인 연쇄 규범의 세부규범인 외연감소의 규범은 하위의 계위로 내려갈수록 적용되는 특성 즉, 내포는 증가하고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개념이나 개체의 범위인 외연이 감소하도록 인용순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범이다(Ranganathan 1967).

열거식 분류체계 구축 시 인용순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면서도 준수하기 어려운 규범은 조정의 규범(Canon of modulation)이다.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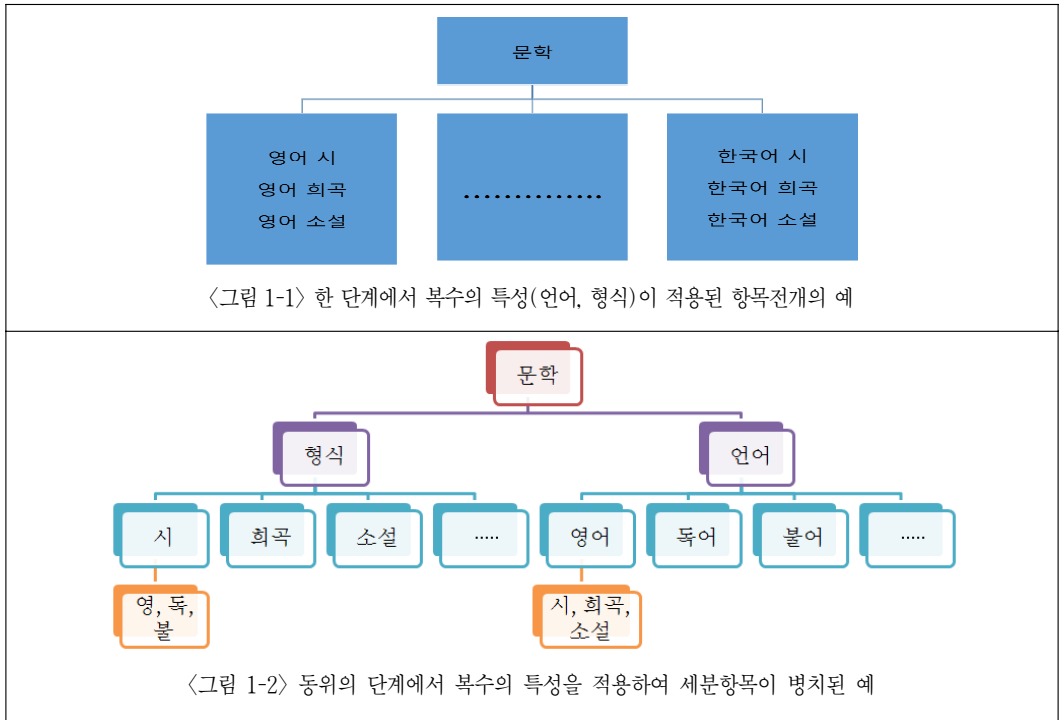
〈표 2〉 인용순 관련 분류의 세부규범

분류단계	분류의 원칙/규범	분류의 세부 원칙/규범
개념의 단계	특성의 연속 규범 Canons for Succession of Character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수성 규범(Canon of concomitance): 주제를 동일한 구분지로 세분할 둘 이상의 특성이 연쇄상에서 병존해서는 안됨. 적합연속규범(Canon of relevant succession): 특정 특성과 관련된 항목 내에서 특성의 연속은 분류의 목적에 적합해야 함. 일관연속규범(Canon of consistent succession): 특성의 연속은 분류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 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함.
개념의 단계	연쇄 규범 Canons for Ch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연감소의 규범(Canon of decreasing extension): 특정 주제항목 내에서 상위 주제에서 하위로 전개될수록 항목에 속하는 외연은 감소하여야 함. 조정의 규범(Canon of modulation): 상위주제에서 하위주제로의 세분과정은 완벽한 점진적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함.

정의 규범은 특정 주제의 세분항목을 전개할 때 각 단계에서 하나의 특성만을 구분의 기준으로 채용하여 점진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단계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다. KDC와 DDC 등의 열거식 분류체계의 문학류에서 ‘문학-언어-형식-시대’라는 인용순을 채택하고 이들 구분 기준을 류, 강, 목, 요목의 계위에 각각 전개하고 있는 것에서 조정의 규범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정의 규범에 따라 문학의 세부 항목 전개의 각 단계마다 하나의 특성만이 적용된다. 구분의 첫 단계에서 언어를, 둘째 단계에서는 형식을, 셋째 단계에서는 시대라는 특성을 적용하여 각 단계마다 상이한 분류의 기준으로 채용하여 항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Dewey 2011).

조정 규범은 각각의 특성들이 단계별로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하나는 분류 항목의 각 계위에 하나의 분류기준만 적용함으로써 준수할 수 있다. 문학류의 예에서 세분항목 전개의 첫 단계에서는 하나의 특성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언어와 형식의 두 가지 특성 가운데 하나만을 적

용하여야 한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언어와 형식을 한 단계에서 동시에 적용하여 한국소설, 영어희곡과 같은 항목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둘 이상의 특성을 동시에 적용하여 항목을 전개한다면 〈그림 1-1〉과 같은 항목전개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전개항목의 상위에 해당하는 한국문학 혹은 특정 문학형식(소설)을 위한 항목의 전개가 불가능하게 된다. 조정의 규범을 준수하는 둘째 방식은 전개단계의 준수이다. 이에 따라 전개의 한 단계에서 두 가지 분류기준을 적용한 항목들을 병치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배하고 상이한 특성을 분류기준으로 하는 항목을 병치하는 경우, 〈그림 1-2〉와 같이 두 특성이 조합된 복합주제인 영어 시는 두 개의 하위 항목에서 전개되며 분류작업과정에서 교차 분류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항목의 전개에 있어 각 단계는 점진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단계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조정의 규범은 분류표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물학의 경우 ‘종속과목강문계’라는 구분의 단계에 따라 전개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 어느 단계라도 생략하고 전개해서는 안 된다.



〈그림 1〉 조정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항목전개 예

조정의 규범은 인용순 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좀 더 많이 쓰이는 분류항목들을 상위에 전개하기도 하고, 계위를 달리하여 각각의 특성을 전개해야 함에도 하나의 계위에 상이한 특성을 전개하는 등 완벽히 준수되고 있지는 못하다.

문헌적 근거에 준거하여 저작이 많고 사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항목들을 상위의 항목에 전개한 예로는 〈그림 2-1〉에 인용한 DDC 종교류의 기독교 항목이 대표적인 항목이다. DDC 종교류의 경우 적용된 기본적 인용순은 '종교류-개별종교-종교공통구분'의 인용순이다. 그런데 DDC의 경우 서구에서의 기독교 편중을 반영하여 종교류의 220~280의 7개 강(division) 항목을 기독교의 하위 항목에 배정하고 기타의 종

교는 290의 '기타종교'에 배정하고 있다. DDC는 주 이용자인 서구의 기독교 중심성과 실용성을 반영하여 중간단계인 기독교를 생략하고 기독교의 세분주제들을 강 항목에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독교의 세부주제는 종교의 하위항목으로 전개된다. 즉 '종교-기독교(개별종교)-세부항목(종교공통구분)'의 3단계가 아닌 '종교-기독교 세부항목'의 2단계의 인용순을 적용하여 강 항목에서 기독교를 생략하므로 조정의 규범을 위배하게 된다. DDC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림 2-1〉과 같은 중앙표목(Centered Heading)을 도입하고 있다 (Dewey 2011). 이렇게 모든 단계를 순차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단계를 생략하는 것은 지식조직의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용성을 고려

한 결과이다. 다만 분류체계의 논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개가 필요한 항목인 기독교를 중앙표목으로 기술함으로써 구분의 단계를 제시하고 조정의 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소러스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구분의 단계를 생략하여 전개된 항목들에서 적용된 분류기준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 노드레이블(node label)이라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그림 2-2>에 소개된 것과 같이 실용적 기준에 따라 전개가 필요한 세부항목을 전개하면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개의 기준이 되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노드레이블을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장치는 전개된 항목의 구분기준, 특성이 무엇인가를 표현함으로써 누락된 단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2005).

계위를 달리하여 각각의 특성을 전개해야 함에도 하나의 계위에 상이한 특성을 전개하여 조정의 규범을 위배한 명백한 예는 DDC의 인간 집단(Groups of peopl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인용순의 적용 문제를 다룬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 **230–280 Christianity**

Unless other instructions are given, observe the following table of preference for the history of Christianity and the Christian church (*except* for biography, explained in Manual at 230–280: Biography), e.g., Jesuit missions 266 (*not* 271); persecution of Jesuits by Elizabeth I 272 (*not* 271, 274.2, or 282):

Specific topics	220–260
Persecutions in general church history	272
Doctrinal controversies and heresies in general church history	273
Religious congregations and orders in church history	271
Denominations and sects of Christian church	280
Christianity by specific continents, countries, localities in modern world	274–279
History, geographic treatment, biography of Christianity (<i>except</i> 271–279)	270

<그림 2-1> 조정의 규범을 따르기 위해 설치된 DDC 중앙표목(Centered Heading)

8.4.3 Node Labels for Related Terms

In order to bring closely related concepts together in the alphabetical array under a given term, related terms *may* be divided into categories that do not form part of a logical hierarchy. These related terms *should* then be identified by a node label.

Example 132: Node labels for related terms

```

books
  RT
    [operations]
      binding
      printing
    
```

<그림 2-2> 조정의 규범을 따르기 위해 설치된 시소러스의 노드레이블(Node Label)

<그림 2> 조정의 규범 준수를 위한 지식조직의 도구

2.2 인용순 관련 주요 선행연구

분류학자들이 인용순을 연구하게 된 배경은 정보의 표현과 검색을 위한 도구인 색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19세기 들어 복합주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색인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복합주제의 표현과 검색을 위한 색인시스템으로 전조합 색인(pre-coordinate indexing system)과 후조합 색인(post-coordinate indexing system) 두 갈래의 접근법이 제안되었다. 검색시 주제를 조합하는 후조합 색인과 달리 정보의 표현 과정인 색인작성과정에서 복합주제를 표현하는 주제명표목(subject heading) 혹은 디스크립터(descriptor)를 선정해야 하는 전조합 색인의 경우, 주제를 표현하는 용어뿐 아니라 주제를 구분하는 특성의 조합/전개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성의 조합순서인 인용순은 전조합 색인에 있어 주요한 연구과제가 되었다.

전조합 색인의 작성과정에서 복합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를 선택하고 조합하여 표준화된 통제어휘인 주제명표목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복합주제의 색인을 위해 선택된 용어들은 일정한 조합순서에 따라 전조합(pre-coordinate)되어야 하므로, 색인을 작성하는 일은 특정한 용어를 선정하는 것과 함께 그 용어들을 조합시키기 위한 조합순서를 찾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전조합 색인의 주된 연구주제의 하나는 개개 개념들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들 간의 일관된 조합순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각의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일련의 색인어를 생성하도

록 배열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검색시 관련 주제를 조합할 수 있는 후조합 색인과 달리 전조합 색인 시스템에서는 색인작업의 대상이 되는 문헌자료의 주제에 포함된 모든 주제를 미리 조합하여 표현해야 했으며, 일관된 색인의 작성을 위해서는 표현되는 주제의 순서를 결정해두어야 했기 때문이다(Myall and Carter 1998).

전조합 색인 작성과정에서 개념간의 조합순서인 인용순의 결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의 토대를 구축한 커터(C. A. Cutter)와 같은 초기 분류학자들에게 인용순의 문제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유는 당시 복합주제가 많지 않았고 복합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공유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커터는 인문-문학과 예술분야의 복합주제 표현을 위한 권고안으로 국가나 언어와 같은 요소를 수식어 형태로 표기하여 'Arabic Poetry'와 같이 주제를 기술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인용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복합주제가 많지 않았던 당시의 학자들은 복합주제를 구성하는 주제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주제를 선택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Riaz 1989).

복합주제의 표현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인용순의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된 시점은 20세기 초반이다. 카이저(Kaiser)는 그의 저서 'Systematic Indexing'에서 통제어와 이의 조합을 위한 공식에 따라 주제를 표현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표 3>은 카이저가 주제의 표현을 위해 제시한 세 개의 패킷과 이들간의 조합 공식을 정리한 것이다.

카이저의 인용순인 패킷간 조합공식은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충분히 상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카이저의 연구는 이후에 등장한 패킷으로 특징지어지는 콜론분류법과 같은 분석-조합식 색인기법의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iaz 1989).

〈표 3〉 카이저의 패킷과 조합공식

패킷 (주제범주)	1) 실제 혹은 상상의 사물을 표현하는 주제어(Concrete) 2) 사물에 부가된 조건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절차(Process) 3) 대부분의 경우 국가를 표현하는 지역(Localities)
인용순 (패킷의 조합을 위한)	1) 주제어 - 절차(예: leather-tanning) 2) 지역 - 주제(예: Pakistan-Education) 3) 주제 - 지역 - 절차 (예: Wheat-Pakistan-Trade)

카이저 이후의 인용순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코트(Coates), 비커리(Vickery), 랑가나단(Ranganathan), 뷰캐넌(Buchanan), 포스켓(Foskette) 등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코트(Coates)는 'Subject Catalog'에서 인용순에 관한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가장 명확하게 정신적 이미지(mental image)를 떠오르게 하는 용어 중요성(term significanc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코트는 정신적 이미지를 명확히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용어 선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복합주제의 표현을 위해 선택된 용어간의 조합순이 면밀히 고려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카이저의 인용순을 확장하여 'Thing-Part-Material-Action'의 인용순을 제시하였다(Maltby 1975).

인용순과 관련한 연구의 또 다른 한 축은 랑가

나단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랑가나단은 분석조합식 분류체계인 콜론분류법(Colon Classification)에서 주제의 표현을 위한 다섯 개의 기본 범주(fundamental categories)로 Personality, Material, Energy, Space, Time을 설정하고, 이들 기본 범주간의 인용순인 'P-M-E-S-T'를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랑가나단의 인용순 'PMEST'는 구체성이 감소하는 순서에 기반한 것으로 랑가나단이 제시한 기본 범주나 인용순에 대해 이견을 가진 분류이론가들도 있으나 20세기 주제분석의 기본 틀과 토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atley 2014).

코트와 랑가나단의 연구 이후, 융복합 연구의 확대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복합주제가 크게 증가하였고 문헌정보학 영역에서도 복합주제의 표현과 검색을 위한 연구가 심화 발전하였다. 복합주제의 표현을 위한 용어의 통제와 용어간의 조합을 위한 인용순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고 기존 연구를 확장한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비커리(Vickery)는 랑가나단의 기본 범주로는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없음을 적시하면서 코트의 연구를 확장하여 'Substance(product)-Organ-Constituent-Structure-Shape-Property-Patient(Raw Material)-Action-Operation-Process-Agent-Space-Time'의 인용순을 제시한 바 있고(Vickery 1960), 뷰캐넌(Buchanan)은 인용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인용순 결정에 관련된 구체성의 감소, 목적, 합의, 주종(Wall-picture) 등 4가지 원칙을 정리하고 'Things-Parts-Constituent-Properties-(Materials)-Action-Agent'의 인용순을 제시하였다(Buchanan 1979). 포스켓(A. C. Foskett)은 'Things-Kinds-Parts-Materials-Properties-Process-Operation

-Agent'의 인용순을 제시한 바 있다(Foskett 1982). 특히 포스켓의 인용순은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 인용순으로서 <그림 3>과 같이 DDC의 최후수단표(Table of last resort)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Dewey 2011).

Table of last resort
(1) Kinds of things
(2) Parts of things
(3) Materials from which things, kinds, or parts are made
(4) Properties of things, kinds, parts, or materials
(5) Processes within things, kinds, parts, or materials
(6) Operations upon things, kinds, parts, or materials
(7) Instrumentalities for performing such operations

<그림 3> 포스켓의 인용순이 반영된 DDC 최후수단표(Table of last resort)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용순에 대한 연구는 전조합 색인시스템의 등장에서 시작되어 복합주제의 증가에 따라 주요 연구과제로 대두되었다. 목록의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는 커터와 같은 초기 학자들은 복합주제의 표현보다는 핵심주제를 선택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복합주제의 확장에 따라 이후의 분류학자들은 복합주제에 포함된 주제를 조합할 필요와 조합시에 적용할 조합순서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일반적인 인용순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인용순은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학자들이 인용순을 결정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한 원칙은 주제와 관련된 본질적인 특성을 우선 표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적용된 원칙은 구체성의 감소, 목적, 합의, 주중(Wall-picture) 등 네 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구체성 감소의 원칙은 가장 구체적인 주제가 먼저 구분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목적의 원칙은 분류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를 들어 동물학 영역의 주제는 동물을 연구한 결과이고 동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연구의 목적인 동물이 선행되고 기타의 특성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합의의 원칙은 해당 분야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순서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주중(Wall-picture)의 원칙은 본질적인 특성과 부수적인 특성 가운데 본질적인 특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질병의 치료'라는 복합주제에서 질병이 있어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질병이 주된 주제가 되고 인용순상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인용순을 연구한 학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인용순에는 차이가 있으나, 각 연구자 고유의 인용순 도출과정에서 위와 같은 원칙은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Gilchrist 2012).

다수의 분류학자들이 복합주제를 제대로 표현하고 검색하기 위해서 개념을 표현하는 최적의 용어를 선택하고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간의 적합한 조합 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인용순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은 인용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모든 주제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용순을 상세한 수준까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구되어 제시된 인용순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인용순 결정을 위한 기본원칙만으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 모든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략적인 인용순을 결정해 놓고 적용하더라도, 각 개별주제에 적합한 구분

기준들을 적용하는 인용순은 개별주제별로 별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용순 적용의 실제

인용순은 분류체계에서 복합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분류기준인 특성들의 전개순서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용순은 관련 분류규범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되며, 특히 조정의 규범이 인용순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론적으로는 복합주제의 표현에 필요한 특성을 선별해내고 선별된 특성들 간의 전개순서를 정하여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 분류체계의 구성과정에서 인용순의 결정 및 적용의 문제는 몇 가지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인용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인용순의 실제 적용의 문제를 조정

의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용순 적용상의 첫 번째 문제는 조정의 규범을 원칙적이고 엄격히 적용하여 항목을 구성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열거식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복수이며, 이들 적용 가능한 분류기준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류항목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조정의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여 각 단계마다 하나의 특성을 전개하는 경우, 인용순이 단순히 특성들 간의 전개순서를 정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용순을 채택한 분류체계에서 주제를 모으고 분산시키는 분류체계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류를 세분전개한 열거식 분류체계를 생각해 보자. 분류체계에서 ‘성별-인종-연령’의 인용순을 채택한 경우와 ‘인종-성별-연령’의 인용순을 채택하는 경우 <표 4>와 같이 상이하게 분류항목이 전개될 것이다.

<표 4> 인용순의 차이에 따른 분류체계의 차이

인용순 1: 성별-인종-연령의 인용순	인용순 2: 인종-성별-연령의 인용순
1 남자	1 황인종
11 황인종	11 남자
111 유아, 112 청소년, 113 청장년, 114 노년	111 유아, 112 청소년, 113 청장년, 114 노년
12 흑인종	12 여자
121 유아, 122 청소년, 123 청장년, 124 노년	121 유아, 122 청소년, 123 청장년, 124 노년
13 백인종	2 흑인종
131 유아, 132 청소년, 133 청장년, 134 노년	21 남자
2 여자	211 유아, 212 청소년, 213 청장년, 214 노년
21 황인종	22 여자
211 유아, 212 청소년, 213 청장년, 214 노년	221 유아, 222 청소년, 223 청장년, 224 노년
22 흑인종	3 백인종
221 유아, 222 청소년, 223 청장년, 224 노년	31 남자
23 백인종	311 유아, 312 청소년, 313 청장년, 314 노년
231 유아, 232 청소년, 233 청장년, 234 노년	32 여자
	321 유아, 322 청소년, 323 청장년, 324 노년

각각의 예시에서 2번째 혹은 3번째 이하로 선택된 특성의 관점에서 저술된 저작은 분산되고 함께 분류하기 어렵다. 인용순의 차이에 따른 분류체계의 차이를 예시한 위 표에서 '성별-인종-연령'의 인용순 1을 채용한 분류체계는 제1의 분류기준인 성별이 아닌 인종이나 연령의 관점에서 다른 저작을 분류하기 어렵다. 남녀 모두를 포함하여 성별에 무관하게 특정 인종의 관점에서 다른 저작을 분류하기 어렵고, 성별에 무관하게 청소년과 같은 특정 연령대의 관점에서 다른 저작을 분류하기 어렵다. 이외는 달리 '인종-성별-연령'의 인용순 2를 채택한 분류체계에서는 인종과 무관하게 여성의 관점에서 주제를 다른 저작을 분류하기 어렵다. 즉, 인용순상의 제 1의 특성으로 선택되지 않은 제 2, 제 3 특성의 관점에 집중하여 다른 저작을 온전히 분류하기 어렵게 된다.

분류체계 구성상의 효율성도 문제가 된다. 조정의 규범을 엄격히 적용한 분류체계는 실용성의 관점에서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표 4>의 예에서 각 분류기준의 적용에 따른 구분지의 수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성별 2개, 인종 3개, 연령 4개로 각각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모두 24(2*3*4)개의 분류항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출현 가능한 모든 구분지를 포함하여 구성한 분류체계의 상당수 항목은 해당항목에 분류되는 저작이 없어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분류체계 구성상의 효율성은 낮아지게 된다. 또한 가능한 모든 구분지를 포함하여 방대한 분류항목을 설정하고 전개하더라도 채택한 인용순에 따라 제 2 혹은 제 3의 구분 특성으로 배정된 특성의 관점에서 기술한 자료는 분류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조정의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제 1의 구분기준으로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인용순의 결정은 우선순위(order of precedence)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제 1의 구분기준으로 채택된 특성을 기준으로 저작이 군집화되며, 분류체계상 관련저작들이 제 1의 구분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의 특성을 전개한 열거식 분류체계의 장점은 복합주제를 전개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즉 위 인용순의 예에서 복합주제인 '황인종 남자' 혹은 '황인종 남자 청소년'과 같은 주제는 쉽게 분류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의 분류기준이 아닌 특성(인용순 1의 경우 인종이나 연령)에 집중한 저작의 분류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현실적으로 모든 주제에서 모든 특성을 완벽히 포함하여 <표 4>와 같이 항목을 전개해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모든 주제를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용적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 활용되지 않을 분류항목을 포함하게 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분류항목의 전개는 비효율적이다.

다음은 인용순과 관련한 조정의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조정의 규범을 유보적으로 적용하는 대안적 적용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용순 적용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복합주제를 세분하는 데 필요한 특성들을 매 단계마다 하나씩 적용하는 것은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정의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 동위의 계위에 상이한 특성들을 병치시켜 분류체

계를 구성하기도 한다. 조정의 규범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특성들을 동위의 분류항목에 전개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 엄격한 적용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열거식 분류체계에서는 실제 저작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주제를 위한 항목 전개를 생략하며, 주된 관점만을 선별적으로 포함하여 항목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는 DDC의 인간집단(Groups of people)의 하위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Dewey 2011). 해당 항목에서 조정의 규범에 따르면 단계별로 하나씩 적용되어야 하는 특성인 인종, 연령, 성별 등의 특성이 동위의 항목으로 <그림 4>와 같이 전개된 것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항목의 배정은 조정의 규범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후순위 특성들에 집중된 저작들을 분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으로 복합주제를 포괄적으로 전개하는 경우 발생하는 분류표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실용성을 반영한 인용순의 대안

적 전개의 예가 될 수 있다. 인간집단을 나눌 수 있는 각각의 특성인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종교, 언어, 인종/국적, 직업 등의 특성을 단계별로 적용하지 않고 동위에 병치하여 항목을 전개한 것이다.

위와 같이 전개된 분류체계를 채택하면 인용순 조정의 규범을 엄격히 적용한 분류체계에서 분류하기 어려웠던 제 2, 제 3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저작의 분류가 용이하다. 또한 조정의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여 전개한 분류체계에 비해 항목전개가 단순화되어 실용성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인용순 적용의 문제점은 여러 특성을 포함하는 복합주제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림 4>의 사람집단의 세목에서는 분류의 대상이 되는 저작에 포함된 '흑인남자청소년'과 같은 복합주제는 특성인 인종, 연령, 성별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므로 '흑인남자청소년'과 같은 복합주제를 완벽히 분류할 수 없다. 저작이 담고 있는 인종, 성별, 연령의 특성들을 모두 반영하

305 Groups of people	
300	Social sciences
300	Social sciences, sociology & anthropology
302-307	Specific topics in sociology and anthropology
305	Groups of people
305.081	Specific groups of people
305.2	Age groups
305.3	People by gender or sex
305.4	Women
305.5	People by social and economic levels
305.6	Religious groups
305.7	Language groups
305.8	Ethnic and national groups
305.9	People by occupation and miscellaneous social statuse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llnesses, gifted people

<그림 4> DDC 인간집단(Groups of people) 세목

여 분류항목을 선택할 수 없고 인종, 성별, 연령의 세 특성 가운데 하나의 특성이래에 분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 특성 가운데 어떤 특성을 우선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미리 규정하여둘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DDC의 경우 <표 5>의 특정항목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선순위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표의 상위에 배정된 항목에서 이하의 특성을 조합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 특수규정에 따르면 인종, 연령, 성별의 특성을 포함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자 청년'은

인종이나 성별이 아닌 연령 구분항목인 청년항목에 우선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기타의 특성은 해당 항목에 조합될 수 있다(Dewey 2011).

인용순의 대안적 적용시, 복합주제를 다룬 저작을 위한 분류항목 선택의 문제는 분류작업자의 인식차이로 인해 교차분류(cross classification)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분류작업 대상 저작이 황인종 남자를 다루고 있더라도 분류작업자에 따라 황인종 혹은 남자라는 특성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종종 일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표 5> 복합주제를 위한 DDC의 분류항목 선택관련 규정

적용범위	규정	규정의 내용
전체항목	선행번호우선규칙 (first-of-two rule)	복수 항목에 분류할 수 있는 저작의 경우 분류표상 앞에 설정된 항목을 선택
	영의 규칙 (rule of zero)	분류항목 선택시 복수의 항목의 선택이 가능할 때, 0이 적은 항목을 우선하여 선택한다. 00보다는 0으로 조합되는 항목을 선택, 0보다는 1-9로 세분되는 항목을 선택
	최후수단표 (Table of last resort in order of preference)	Table of last resort (1) Kinds of things (2) Parts of things (3) Materials from which things, kinds, or parts are made (4) Properties of things, kinds, parts, or materials (5) Processes within things, kinds, parts, or materials (6) Operations upon things, kinds, parts, or materials (7) Instrumentalities for performing such operations
특정항목	특수 우선순위 (DDC 인간집단의 예)	특정 분류항목에서 위의 일반적인 규정이 아닌 별도의 지시가 주어진 경우 예) 305 Groups of people Unless other instructions are given, observe the following table of preference, e.g., African American male youths 305.235108996073 (not 305.3889607300835 or 305.896073008351):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llnesses, gifted people 305.908 Age groups 305.2 People by gender or sex 305.3-4 People by social and economic levels 305.5 Religious groups 305.6 Ethnic and national groups 305.8 Language groups 305.7 People by occupation and miscellaneous social statuses 305.9 (except 305.908)

러한 인용순의 대안적 적용을 선택한 항목에서 교차분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복합주제를 다룬 저작의 특성간 우선순위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만약 동위에 전개된 특성간의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교차분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DDC는 이와 같이 복수의 분류항목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 어느 항목에 분류할 것인지를 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규정은 <표 5>와 같다.

복수의 분류항목을 선택할 때 선택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위 규정들은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규정과 특정 주제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항목에서 적용되는 특수규정의 예로 채택한 <표 5> 인간집단의 예에서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종교, 언어, 인종/국적, 직업 등과 같이 인용순상에서 조정의 규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특성들이 모두 동위의 항목에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한 구분지들이 아니므로 조정의 규범에 따라 계위를 달리하여 전개되어야 하는 특성들이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계위에 동위항목으로 전개해 놓은 항목인 것이다. 이들 특성 가운데 둘 이상의 특성을 포함하여 주제를 다룬 저작을 분류하는 경우 어떤 특성을 우선하여 분류할지에 대

한 규정이 없다면 교차분류는 불가피할 것이다. 완벽한 주제전개나 번호조합이 허용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특성의 선택을 위한 지침이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분류체계 구성의 효율성과 사용상의 실용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분류항목 선행번호우선규칙이나 최후수단표를 제외하고 특정항목에만 적용되는 DDC의 우선순위표는 모두 88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2016). 이들 우선순위표는 적용의 범위나 상세함의 차이는 있으나 동위항목에 병치된 상이한 특성들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 관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위와 같은 다양한 우선 선택규정에 따라 특정 인용순에 따라 구성된 분류체계에서 인용순상의 제 2, 제 3의 특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저작도 관련 분류항목에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선행번호우선규칙은 인용순의 관점뿐만 아니라 복수의 주제를 다룬 저작을 분류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용순의 이러한 대안적 적용은 분류표 전개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인용순 상의 제 1의 특성이 아닌 다양한 특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저작을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용순 조정의 규범을 엄격히 적용한 경우와 대안적으로 적용한 경우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조정의 규범 적용 방안에 따른 분류체계의 장단점 비교

구분	조정의 규범 적용 방안	
	원칙적(엄격한) 적용	대안적(유보적) 적용
분류항목 전개	복잡	단순
복합주제의 표현	용이	어려움
특성의 전개 및 조합	제 1의 특성 중심	제 2, 제 3의 특성 전개 가능
분류표의 실용성/효율성	낮음	양호

이상에서 살펴본 인용순의 원칙적 적용과 대안적 적용시의 장단점은 열거식 분류법의 기본적인 한계점이며 선택의 문제를 남긴다. 즉 인용순의 결정에 있어 조정의 규범을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면 저작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특성을 포함하여 전개하여 놓은 분류체계에서 인용순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특성으로 선택된 특성의 관점에서 다른 저작을 분류하기 어렵다. <표 4>에서 인용순 1을 선택하여 구성한 분류체계에서 성별에 무관하게 인종 혹은 연령의 관점에서 접근한 저작을 분류할 완벽한 방안은 없다. 이와 반대로 상하위 계위에 배정하여 전개해야 하는 상이한 특성들을 동위의 항목으로 전개하여 조정의 규범을 대안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주제를 표현하기 어렵고 동위항목에 전개된 상이한 특성간의 우선순위를 규정해야 하며, 분류작업시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4. 결 론

본고의 논의를 통해 분류체계에서 복합주제의 표현을 위한 복수 특성들의 전개/조합 순서인 인용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먼저 인용순과 관련된 문헌분류체계의 이론과 규범들을 살펴보았으며, 인용순과 관련된 주요 이론가들의 연구결과를 고찰해 보았다. 또한 실제 분류체계의 구성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용순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인용순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인용순과 관련된 분류이론은 모두 개념의 단계에 포함되는 규범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

념의 단계에 포함되는 특성 연속 규범의 하위 규범인 부수성 규범, 적합연속규범, 일관연속규범과 개념단계에 포함되는 연쇄규범의 하위 규범인 외연감소의 규범과 조정의 규범 등이 인용순과 관련된 주요 분류규범이다. 특히 인용순의 결정에 관련된 조정의 규범은 그 적용방법에 따라 전체 분류체계의 구성 및 사용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순과 관련한 연구는 전조합 색인 시스템에서 주제명표목 작성시 복합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용어를 선택하고 선택한 용어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학문의 발전에 따라 복합주제가 확장되면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대표적인 인용순으로는 랑가나단의 기본 범주간 인용순인 'P-M-E-S-T'와 DDC 최후수단표에 반영되어 있는 포스켓의 'Kinds-Parts-Materials-Properties-Process-Operation-Agent'의 인용순을 예시할 수 있다. 연구자들마다 제시한 인용순은 상이하지만, 각 연구자가 인용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원칙은 구체성의 감소, 목적, 합의, 주종(Wall-picture) 등 4가지로 공통된다. 또한 모든 주제 영역에 동일한 인용순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각 주제영역별로 상이한 인용순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있다.

실제 분류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인용순의 적용은 조정의 규범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원칙적 적용과 대안적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조정의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분류항목 전개는 복잡해지며 비효율적이 된다. 복합주제의 표현은 용이하나 인용순상의 제 1의 특성 이외의 관점에서 접근한 주제의 표현이 어려워지며 분류표의 실용성과 효율성은 낮아지게 된

다. 이와 반대로 인용순 결정에 있어 조정의 규범을 대안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단계별로 전개해야 하는 특성들을 동위의 항목에 전개함으로써 분류항목의 전개는 단순해지고 여러 특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주제의 표현이 용이하여 분류

표의 실용성과 효율성은 증대된다. 다만 이러한 대안적 인용순 적용방안을 적용한 분류체계에서는 복합주제의 표현이 어려우며 여러 특성 가운데 하나의 특성을 선택해야 하므로 일관된 선택을 지원할 우선순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2005.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Format, and Management of Monolingual Controlled Vocabularies*. Baltimore, Maryland: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
- [2] Batley, S. 2014. *Classification in Theory and Practice*. Amsterdam: Elsevier.
- [3] Buchanan, B. 1979. *Theory of Library Classification*. New York: K.G. Saur.
- [4] Myall, C. and Carter, R. C. 1998. *Portraits i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Theorists, Educators, and Practitioners of the Late Twentieth Century*. New York: Haworth Press.
- [5] Chan, L. M. and Hodges, T. 2007.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An Introduction*. 3rd ed. Lanham: Scarecrow Press.
- [6] Dewey, M. 201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rd ed. Dublin, Ohio: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 [7] Foskett, A. C. 1982. *The Subject Approach to Information*. London: Clive Bingley LTD.
- [8] Gilchrist, Alan. 2012. "Facets of Knowledge Organization." In *Proceedings of the ISKO UK Second Biennial Conference*, July 4th-5th, 2011, London.
- [9] Kumar, K. 1981. *Theory of Classification*.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 [10] Maltby, A. 1975.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London: Trinity Press.
- [11]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2015.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Glossary*. [online] [cited 2016. 1. 25.]
 <<http://www.oclc.org/support/documentation/glossary/dewey.en.html#C>>
- [12]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2016. *Webdewey*. [online] [cited 2016. 2. 20.]
 <<http://www.dewey.org/webdewey/standardSearch.html>>
- [13] Ranganathan, S. R. 196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 [14] Riaz, M. 1989. *Advanced Indexing and Abstracting Practices*. New Delhi: Atlantic Publishers & Distributors.
- [15] Vickery, B. C. 1960. *Faceted Classification: A Guide to Construction and use of special schemes*. London: Aslib.